

현장체험·구직 '한꺼번에'

부산지역 기관 취업·연수 프로그램

여름방학을 맞아 하반기 취업을 준비하는 고교 및 대학 졸업예정자들의 발달을 돕고 있다.

정부의 각종 고용안정 대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고용시장의 안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갑수확 지원해 주는 취업경쟁률을 높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취업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13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부산시, 부산지방노동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본부, 부산울산중소기업청은 생산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실업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취업 및 연수 프로그램들을 마련, 실시하고 있다.

이들 기관이 지역 업체들과 연계해 실시하는 취업보장 인턴제 등을 잘 활용하면 현장체험은 물론 취업까지 할 수 있다.

▲부산시-시는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해외취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뉴 강 플랜'을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중 '해외인턴사원 취업지원 사업'은 50여명의 부산지역 대학(예정)자를 해외로 보내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부산에서 동대문대 등 10여개 대학을 시범대상으로 지원, 참가자 1인당 200만원을 지원했다.

또 시는 청년실업자(만 18~29세) 5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취업지원센터

를 지난 2월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인력개발센터 내에 설립했다. IT(정보기술) 분야 신산업과 등 일종의 직업 훈련을 3~6개월간 실시하며 오는 10월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올해 시가 처음으로 실시한 취업보장 인턴사원제는 대졸 미취업자(30세 미만) 150명을 대상으로, 1년간 20인 이상 중소기업에 배치하는 사업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한달에 90만원(시 지원 60만원, 기업 부담 30만원)을 받게 되고, 이 과정을 이수한 사

람은 1년간 정규직으로 의무 채용된다. 시는 업체의 인력이 좋아 지난 5월 대상기업을 기존 30개에서 100개사로 확대했다.

▲부산지방노동청-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산직장제형 프로그램 연수지원제'의 참여자는 2~6개월동안 주 20시간 일하며 월 30만원씩 받는다. 올해부터는 졸업생도 참가할 수 있으며, 노동청은 제도 시행을 위해 6~8월 방학을 연수기간으로 설정했다. 부경대 등 대·신라대 등 일부 대학은 이 사업 참여를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노동청은 이달 말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취업지원제는 18~30세 미취업자가

졸업한 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에서 현장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노동청은 인턴 사원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3개월 동안 매달 60만원 지원하며, 인턴을 정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3개월분(180만원)의 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기타-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본부는 '생산현장 직종내 교육훈련(OJT)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채용 지원사업'을 오는 10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공계열의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종진공이 진단한 기업중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업체에 근로자를 연결시켜 주는 프로그램이다. 근무일수 50일 이내에서 업체당 하루 평균 32만원을 보조해주고 있다.

중소기업진흥조합 중앙회 부산울산지회는 회원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 2~3개월간의 직업교육(수당 월급 20만원) 및 2~3개월의 현장연수(월 50만원)를 실시하고 이를 수료한 30세 미만의 교육생을 기업에 취업시키는 '중소기업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올해 170여명이 투입되며, 5500명의 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증가추세는 보이고 있다.

우수 중소기업에서 2주~2개월간 근무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체험활동(총합)을 매년 시행하고 있는 부산울산중소기업청은 올해에는 지역 20개 대학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활동에 참여하면 학생은 1인당 17만원 이내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이선경기자 see@kookje.com

인턴사원제·직장내 교육훈련 등 사업 시행

수당 지급에 학점 인정...정규직 의무채용도

○주요기관 취업프로그램			
기관	사업명	주요내용	지원금
부산시	해외인턴사원 취업지원	부산지역 대졸자 500명 대상, 1인당 200만 원 지원	
	취업지원센터	130여 직종 열거 500명 직업교육	
	취업보장인턴지원제	300명(미만 150명) 대상, 200여명 중소기업에 배치, 연고 90만원	
부산지방노동청	취업지원제	18~30세 대졸, 3개월간 기업내에서 연수, 인턴사원 채용 사업청과 월 60만원 지원	
	연수지원제	20시간 연수, 월 30만원 지원	
부산울산중소기업진흥	중소기업 체험활동	2주~2개월 우수 중소기업에서 단기근로, 월 170만원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현장체험 패키지 사업	2~3개월 직업교육(월급 20만원), 2~3개월 현장연수(월 50만원) 포함 총 170만원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본부	생산현장 OJT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채용 사업	9월~12월, 50일 이내 근무하며 업체당 하루 32만원 지원	

음식점 카운터 관리 S/W 개발



<8> 마린소프트



13일 부산 영도구 남동동 마린소프트 사무실에서 이재민(맨 앞쪽) 사장과 직원들이 레파스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해당 선택관련 소프트웨어 업체인 부산 영도구 남동동 (주)마린소프트는 최근 '재미있는' 시도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업체는 소자본 창업자들을 위한 음식점 카운터 관리 프로그램인 '레파스(Reficco)'를 개발, 판매하고 있다.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80% 이상이 요식업 창업인 점을 감안, '식당용 ERP(점차차 지원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다.

회사 측은 그동안 테이블 식차와 고객 등의 관리와 컴퓨터로 처리하고 있는 업체는 대부분 대형 및 프랜차이즈 식당이며, 포스시스템 등 하드웨어를 갖추는데만 해도 300만~500만원이 소요되는 등 전산 관리가 소자본 창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업체 직원들의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출시된 레파스는 포스시스템 등 별도의 하드웨어를 갖출 필요없이 컴퓨터 한대만 있으면 해결되는 장점이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이 회사 이재민 사장은 '레파스'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일반 '개미군단'을 위한 제품으로 매출액 계산과 재고 및 매장 관리, 메뉴 개발 등 수천 번의 경영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을 사용

하는 식당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향후 모바일과 연동, '식당 예약' 등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들을 위한 콘텐츠 개발로 영역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양 전문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마린소프트의 고유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업은 별도 법인을 설립하거나 라이선스 발매 형태를 계획하고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한편 마린소프트는 인터넷(국제해사기 위상)을 활용, 선박의 위치와 운항 정보 등을 웹 기반으로 제공하는 선박 통합관리 프로그램인 'VIMS' 판매도 강화하고 있다.

/이선경기자

소자본 창업 대상 고가 포스시스템 대체

해양 전문업체 불구 사업영역 확장 한창

을 위한 한달에 3만3000원의 이용료를 지불하는 유료 회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현재 전국 100여개 업소가 무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 판매가 본래도 올라가는 2006~2007년 매출에 따라 매출액이 3억원이 넘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회사 이재민 사장은 '레파스'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일반 '개미군단'을 위한 제품으로 매출액 계산과 재고 및 매장 관리, 메뉴 개발 등 수천 번의 경영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을 사용

넘치는 힘...길 안내까지 '척척'

1600cc SM3 시승기

르노삼성자동차(대표 제롬 스톨)는 준중형차로는 처음으로 1600cc 엔진을 사용, 기존 SM3보다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SM3 CVT 1.6 (4진)'을 이달부터 소비자들에게 선보였다.

이 차의 장점은 여러 곳에 발견된다. 실내 폭(1400mm)과 높이(1200mm)를 늘려 차안이 좁다는 지적을 받았던 SM3의 단점을 보완했으며, 가격은 이전 제품 수준(1041만~1288만원)으로 책정했다.

신형 SM3의 가장 큰 장점은 준중형차로는 처음으로 지능형 정보 네비게이션(선박)을 장착했다는 점이다. SK텔레콤의 콘텐츠인 '네이트 드라이브'를 활용해 길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별도의 네비게이션 단말이나 프로그램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덜었다. 단속 카메라 위치 정보와 렌즈프리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어 관련 장비에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어졌다.

첨단 장비가 설치된 신형 SM3는 실제 주행에서도 운전자에게 만족할만한 성능을 보여줬다. 기차가 이 차를 타고 부산을 떠나 전남 보성으로



길을 받지 못했다. 정시간의 운전에도 피로를 덜 느끼게 하는 등 승차감이 돋보였다. 가속 페달도 부드럽고 여성들이 운전하기에도 적당했다. 자동변속 제동의 연비는 도심과 고속도로 평균 8.2km/12~13km 수준으로 르노삼성이 제시한 수치(12.3)와 비슷했다.

선글라스 보관함 등 조그마한 수납 공간이 많고 트렁크 용량도 460ℓ 수준으로 비교적 커 보이지 않는 곳의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 하지만 도어록 기능이 자동차에 최대한 가까이 가야 하고 버튼을 짚어야 눌러야만 작동되는 불편한 '육에 띠'로 남았다.

/이선경기자

실내공간 넓히고 네비게이션 장착

하기 위해 넓히고 속도에도 영향을 때는 SM3의 주행 능력에 칭찬을 보낼 만했다.

은색 등 모두 8가지 색상으로 생산된 신형 SM3는 시속 100km 이상에서도 차의 떨림이 느껴지지 않았으며, 소음도 거의 없었다. 중형급에 가까운 차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시 무겁다는 느

선박 테러·조난 '걱정 끝'

(주)사라콤 안전경보장치 개발...수입 대체효과

선박 항해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 업체인 (주)사라콤(대표 임건)이 지난 3월 선박자동 식별장치(AS)에 이어 최근 선박안전 경보장치(SSAS) 개발에 성공했다.

특히 이 장비는 300t 이상 선박에 장착이 의무화된다. 최근 이라크 파병과 관련, 항해 중 테러 등 비상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라콤은 신개발품인 선박안전 경보장치(Ship Security Alert System) 'SC-2001'이 최근 해양 관련 품목 인증기관인 한국선급으로부터 형식승인을 획득했다고 13일 밝

다. 이 장비는 소형 경비보트를 누르는 등 자동적으로 선박의 위급상황을 육상의 주요 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제해사기구는 테러나 해적 등의 해상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여객선, 탱크선 등 국제항해선박에 이 장비의 설치와 사용을 의무화했다. 업계에서는 선박안전 경보장치의 국내시장 규모를 연간 2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라콤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관련 분야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데도 일부 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높아 매출증대에 효과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부터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시장도 적극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승현기자 sline@kookje.com

최순욱의 차트급소 공략법

차트급소 공략법 1차역주 비디오 자료집

www.kookje.com

라플레온 힘에 이력에서 영리한 성공학 노트 1

101가지 이야기

당신만의 기적을 깨워라

101가지 이야기